

# 2부



실전 학생부종합전형 분석

## » 경희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유의사항

경희대학교는 다른 여러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의도를 가진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형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전형 선택 과정이 중요할 것 같지만, 고교연계전형은 학교당 지원 가능한 학생의 수가 계열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자가 적고, 그 선택도 자유롭지 못하다. 고교연계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었지만 추천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두 전형의 전형 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 학교장 추천전형이 많이 생기고 있어 학교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정해 순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여러 대학에 중복되어 추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기준이 내신 성적인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고교연계전형에는 내신 등급이 우수한 학생이 많이 지원하게 된다. 그래서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면 통상적으로 내신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에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우수한 '내신 성적' 때문에 합격했다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술했듯이 내신 성적은 이 전형에 지원할 자격을 얻은 것이고, 실질적인 변별력은 서류평가에서 발생한다.

멀게는 4등급 이하의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4등급 이하인 학생이 경희대 추천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합격했다는 것이다. 학생부교과 성적과 출결 등이 정량적으로 반영되지만, 서류평가에서 충분히 그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내신 성적에도 고교연계전형의 지원 자격을 얻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네오르네상스전형은 합격자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경희대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와 지원자의 교과 등급 분포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입시결과를 볼 때 합격자의 '내신 평균'을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교연계전형과 달리 네오르네상스전형은 다양한 유형의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이 넓게 지원한다. 경희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기조로 다양성을 명시하기도 하는 만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나의 학생부에서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경희대는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 ▶▶ 고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고려대는 전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구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서울대, 연세대와는 다른 지원 양상을 보인다. 고려대는 1단계에서 5배수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데, 면접결시율은 30% 내외이며 지원자들의 수능 최저충족률은 60~70% 수준이다. 실질 경쟁률이 학교추천Ⅱ 전형은 2.5~3:1 수준, 일반전형은 2: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즉, 1단계를 통과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때문에 서울대/연세대에 비해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 분포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평균 성적은 낮다. 2019학년도 일반전형의 경우 내신 평균 3.5등급의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통상적으로 고려대를 지원하려는 학생은 서울대/연세대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을 한 묶음으로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고려대만의 다소 이질적인 전형구조 때문에 동시합격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고, 충원율도 높지 않은 편이다. 충원율이 아예 0%인 모집단위들도 있는데, 충원 대상자 중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표]** 고려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 비율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 비율 (%)
일반전형	(인문) 국, 수, 영, 탐(1) 4개 등급합 6, 한국사 3등급	4.5
	(자연) 국, 수(가), 영, 과(1) 4개 등급합 7, 한국사 4등급	6.1
	(의과대) 국, 수(가), 영, 과 4개 등급합 5, 한국사 4등급	1.3
학교추천Ⅱ	(인문) 국, 수, 영, 탐 중 3개 등급합 6, 한국사 3등급	8.2
	(자연) 국, 수(가), 영, 과 중 3개 등급합 6, 한국사 4등급	11.0
	(의과대) 국, 수(가), 영, 과 4개 등급합 5, 한국사 4등급	1.3

\* 충족 가능 비율: 전체 수능 응시자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응시자의 비율(탐구과목 기준)

\*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비율

위의 표는 고려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예를 들어 일반전형 인문계열의 충족 가능비율은 4.5(%)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탐구 선택자를 인문계열로 상정하고 전체 인문계열 응시자가 30만명이라면, 그 중 고려대 일반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그 4.5%인 12,000명 정도라는 뜻이다. 함께 지원하는 대학군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다.

이 12,000명 내외의 학생 중 이 대학들의 서류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서류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상황에 따라 고려대는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상위권 학생이라도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서강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서강대는 학교의 특성과 입시적 위치 상 계열을 불문하고 충원율이 높게 나타나는 대학 중 하나이다. 학생들이 함께 고려하는 타 대학과 전형요소상의 특별한 구별점은 적은 편이라 동시합격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서강대 학생부종합전형만의 특징은 수능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학업형'이다. 수능 이후 서류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학업형의 전신인 2019학년도 일반형의 인문계 모집단위의 경우, 30명 모집에 560명이 지원해 최초 경쟁률이 18.67:1이었다. 이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서류를 제출한 학생은 총 349명으로, 실질 경쟁률은 11.63:1이었다. 하지만 300%를 상회하는 충원율로 서강대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학생은 총 125명이었다. 349명 중 125명이 합격했으니, 추가합격이 반영된 실질 경쟁률은 2.79:1이었다. 모집단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모집단위가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진다. [2020학년도 서강대 입학가이드북]을 통해 본인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전년도 경쟁률 등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다만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실질 경쟁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수능 이후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소위 '수시 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내가 꾸준히 좋은 수능 성적을 획득해 왔다고 하더라도 수능 당일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류의 경쟁력이 있다면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지원할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서강대를 상향으로 지원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다. 사실 대학에 따라 6번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서류 경쟁력 수준을 판단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타 대학의 1단계 합격 발표 결과를 통해, 자신의 서류 경쟁력 여부를 일부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불합격한 경우 학생부는 바꿀 수 없지만, 자기소개서의 변화를 통해 내 학생부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달리할 수 있다. 합격했다면 자기소개서도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원하면 될 것이다. 동시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수정·보완의 기회도 있을 것이다.

서강대를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학업형의 독특한 서류 제출 시기를 십분 활용하여야 하며, 종합형과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은 두 개의 전형이 각각 다른 의미로 운영되고 있다. 두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도 다르다. 그렇기에 서울대의 학생부종합전형 두 전형은 완전히 다른 전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애초에 두 전형 간 복수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추천인원 제한 때문에 이 선택이 자의적이지는 않다.

**[표]**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생의 고교 유형별 현황(명/%)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기타
지역균형	482 (86.5)	22 (3.9)	48 (8.6)					5 (0.9)
일반전형	585 (34.3)	262 (15.3)	37 (2.2)	135 (7.9)	271 (15.9)	197 (11.5)	32 (1.9)	189 (11.0)

\* [2019.03.22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보도자료]에서 발췌 및 재구성

\* (기타)에는 예술/체육고, 특성화고, 검정고시 등 포함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구성은 완전히 다르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일반고와 자공고의 합격생 비율이 거의 95%수준이며,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의 학교들은 합격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반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자공고의 합격자는 36.5%수준이었으며, 그 외 각종 학교들이 상당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한 학교당 2명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도 전교 석차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그렇기에 경쟁률도 통상 2~3:1 수준에서 형성된다. 이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통과했다면, 사실상 이 학생들은 미세한 내신 등급 등의 차이로 변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즉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제한된 추천인원수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해 일차적인 학업적 소양은 검증된 상태로 서류평가가 진행된다.

지원자 전원에게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물론 면접의 변별력이 존재하나, 굳이 중요도를 표현하자면 서류 평가가 더 중요하다. 내신 등급이 아닌 교과 성적의 정성적 평가와, 학생부를 통해 표현된 학생의 학업 태도, 지원전공과 관련한 이수 교과목 / 탐구 활동 등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만의 특징인 독서와 관련된 문항의 비중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꾸준한 독서와 기록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반전형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달리 구술고사 형태의 면접이 있다는 점에서 특목고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해 학업 역량을 검증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서류평가와 구술고사를 통해 학업 역량과 전공적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평가한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한 학생은 일반전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쟁률도 6~8:1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 서류 경쟁수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지원하기보다는 6번의 수시 지원 기회 중 1번의 기회를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적지 않은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서울대를 고려하는 학생들은 서울대에 합격한 선배나 지인이 있다면 그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재학생인 학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서울시립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은,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 나. 지원자격

2010년 2월 이후 국내 정교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자

\*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 수시모집요강] 中, 강조는 인용자

다른 대학들도 전공안내 책자나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 ‘이런 학생이 이 전공에 지원하면 좋다’는 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립대는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지원자격’이라는 다소 강력한 어휘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모집단위별 인재상은 각 모집단위별로 해당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역량을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경대학 - 행정학과	도시과학대학 - 도시행정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li> <li>사회문제와 공동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적·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li> <li>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에 대한 이해 및 조정능력을 갖춘 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어 및 사회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갖춘 학생</li> <li>도시 및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며 분석력을 갖춘 학생</li> <li>도전정신 및 소통과 통합역량, 진취적 리더십 및 봉사정신을 갖춘 학생</li> </ul>

\* [UOS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발췌 및 재구성

행정학과와 도시행정학과는 명칭만 들어서는 비슷한 역량을 요구하고 비슷한 내용을 배울 것 같지만, 두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상이하다. 두 전공의 개설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행정학과는 경제학,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정책학 등 여러 학문들과 연결된 사회과학의 한 분과이며, 순수학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도시행정학과는 물론 행정적인 이론도 필요하지만 도시에 특화된 다양한 문제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굳이 표현하자면 행정학과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학’의 과이며, 도시행정학과는 도시행정‘학’이 아니라 ‘도시행정’의 학과이다. 이처럼 명칭은 유사하지만 실제 배우는 내용이나 필요한 역량이 적지 않게 다른 전공들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 일부 소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런 ‘모집단위별 인재상’의 명시는 서울시립대를 지원하려는 학생에게 다소의 고민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나의 학생부 기록들이 어떤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은 전공적합성을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외국어에 대한 성취나 관심도가 높은 학생은, 불문학과에 지원하든 독문학과에 지원하든 큰 차이가 없다. 한 모집단위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면, 다른 모집단위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이와는 다르다. 물론 자연계열이라면 수학, 과학이 우수해야 하는 등 기본적인 학업 성취의 중요성은 동일하지만, 그와 별개로 각 모집단위별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역량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문화학과는 인재상 중 하나로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국어 및 역사 교과의 소양이 뛰어난 학생’을 요구한다.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역사적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꼼꼼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먼저 생각해내기는 어렵다.

서울시립대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각 모집단위별 인재상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에 더해 각 학과별 소개나 커리큘럼 등을 더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기에는 무엇을 전공한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고 어떤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주력 분야는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지원 모집단위는 내가 지원한 타 대학의 모집단위나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인데,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내 학생부와 모집단위별 인재상에서 명확히 보이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성균관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성균관대는 광역모집/학과모집이라는 큰 틀을 몇 년 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입시결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균관대는 연세대/서강대 등과의 전형 요소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2019학년도 사회과학계열 계열모집의 경우 146명 모집에 569명이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다. 지원자가 2,054명이니 최초 경쟁률은 14:1 수준이지만, 추가합격을 고려하면 3.6:1 수준이 된다.

학과모집은 이보다는 충원율이 적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학과일수록 충원율이 높다. 예를 들어 글로벌경영학은 50명 모집에 216명이 합격하여 충원율이 300%를 상회하였지만, 한문학과는 20명 모집에 35명이 합격하여 충원율이 100%가 채 되지 않았다.

자연계열의 경우 계열모집은 모집단위 자체가 거대한 측면이 있어 충원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충원인원은 상당하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지원자 2,818명 중 932명이 합격통보를 받았다. 의예과의 경우 25명 모집에 54명이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다. 성균관대 의대의 입시적 위치를 고려할 때 성균관대를 포기하고 갈만한 의대가 많지 않음에도 적지 않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균관대의 대의 경쟁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성균관대는 합격자들의 스펙트럼이 다소 넓은 편에 속한다. 내신 1~1.5등급인 학생의 비중도 높지만, 3등급 이하인 학생의 비중도 적지 않다. 학과모집 인문계열의 경우 50% 이상이 2.5등급 미만의 학생이었다.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학생의 풀은 지역 및 고교 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간의 오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재학중인 고교 유형에 관계없이 경쟁력에 따라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면 될 것이다.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은 담백한 서류 100% 전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서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지원전략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굳이 꼽자면 자기소개서에서 개성을 줄 수 있다. 통상 자기소개서의 4번 자체문항은 지원 전공의 동기 등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성균관대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친 유·무형의 콘텐츠'와 관련하여 기술하는 다소 특이한 선택지가 있다. 서울대 4번 문항과 비슷하지만 꼭책이 아닌 다른 콘텐츠, 이를테면 영화/음악/사진/공연/인물도 기술할 수가 있다. 이 문항을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연세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지원자의 풀이 아주 완벽하게 갈리지는 않는다. 두 전형간에 복수지원도 가능하며, 경쟁력 수준에 따라 두 전형 모두 지원이 가능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면접형의 특징은 전형명대로 면접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과성적이 정량적으로 반영된다는 데에 있다. 연세대 입학처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내신 성적이 평가되지 않고 단순 계산되어” 반영된다. 평가관의 해석이 포함되지 않고 정량적으로 반영되는 뜻이다. 면접형의 취지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선발하면서 그 학생들을 면접의 형태로 검증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우수형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한다.

학년별 반영비율이 1학년:2학년:3학년이 각각 20:40:40인데, 3학년은 1학기까지만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학년 1학기 내신은 1학년 한 학기의 4배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연세대 면접형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전 학년 내신을 단순 통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의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을 계산해보아야 한다. 통상적인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성적은 1등급 중반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우수형은 교과 성적과 학교 활동의 영역을 분리해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면접형에 지원하기에는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활동우수형과 면접형 지원자의 내신 성적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을 검토할만한 학생들의 수는 많지 않다. 그 중 면접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활동우수형보다 적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연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서울대나 고려대보다 적기 때문에 그 경쟁이 더욱 치열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 활동우수형과 면접형의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거의 동일하게 형성되는데, 일반고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지원자들의 학교 유형 스펙트럼이 넓은 인문계열과 달리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일 수 있다.

활동우수형의 또 다른 특징은 전년도에 있었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었을 때도 면접 결사율은 10%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원자의 풀이나 합격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연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학생부종합전型的의 총원율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는데, 1단계에서 2.5배수라는 많지 않은 인원만이 선발되므로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이라면 면접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면접의 영향력은 명시된 반영비율보다는 적다. 그래도 면접 결사율이 소폭 줄기는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을 것이며, 면접의 반영비율이 40%로 상승했으므로 면접의 중요도는 전년대비 소폭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

---

---

---

---

---

---

---



##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이화여자대학교는 학사제도를 포함한 대입선발에 대해서도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실험하고 있는 대학이다. 2019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서 계열별 대단위 모집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2019학년도부터 면접이 폐지되어 서류 100%인 전형이 되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되었다. 2018학년도 입시결과까지는 발표되어 있지만 2019학년도 입시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차이가 커 합격하는 학생의 성격은 적지 않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서류 100%’ 전형이라는 점에서 지원자를 공유하는 경쟁대학들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전형 그 자체로는 경쟁대학들과는 다른 두드러진 특성이 보이지 않는데, 이화여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여자대학’으로서의 특징이다.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 비율(%)
미래인재전형	(인문) 국, 수(나), 영, 탐(1) 중 3개 등급합 5	11.5
	(스크랜튼 - 자유전공)	
	국, 수(나), 영, 탐(1) 중 3개 등급합 4 또는	7.0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등급합 5	9.9
	(자연)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등급합 6	13.9
	(융합학부- 뇌·인지과학 전공)	
	국, 수(가), 영, 과(1) 중 3개 등급합 5	9.9
	(의과대) 국, 수(가), 영, 과 4개 등급합 5	2.3

\* 충족 가능 비율: 전체 수능 응시자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응시자의 비율(탐구과목 기준)

\*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비율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의 서류 경쟁수준은 경쟁대학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지원자들의 편차는 경쟁대학보다 넓어진 다.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할 때, 1등은 여학생 2등은 남학생 3등은 다시 여학생. 같은 식으로 학생들이 분포한다고 가정해보자. 남녀공학인 A대학에서 20명을 선발한다면 1등부터 20등이 합격한다. 하지만 이화여대에서는 40등까지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최초합격자와 최종합격자 사이의 간격이 타 대학보다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

위의 표에서 이화여대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은 전체 인문계열 수험생의 11.5%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비율에는 남/여 학생 비율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학생의 성별 비율이 동일하다면,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인문계열의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은 전체 인문계열 학생의 6%가 채 되지 않는다. 물론 1:1의 남녀 성비가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이는 고려대 일반전형에 지원가능한 학생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율이다.

즉 이화여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여대의 특성상 숙명적으로 갖게 되는 표본의 편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화여대는 일반적이지 않은 입시결과와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화여대를 선택지에 넣고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이화여대의 특수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중앙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중앙대는 올해부터 2단계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 입시결과와는 소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단계 선발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원자 전원이 추가합격대상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과 면접에 응시한 학생만 추가합격이 가능했던 지난해와 달리, 충원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쟁대학들과 동일한 서류 100% 전형이라는 점은 이를 더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대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은 분명하게 대비되는 두 전형의 차이이다. 최근 몇 년간의 지원자/합격자 분포를 보면 전형설계의 의도대로 다빈치형인재전형은 일반고 학생의 합격자 비율이 80% 수준이며, 탐구형인재전형은 일반고 학생의 합격자 비율이 40%가 채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빈치형인재전형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역량의 균형은 일반고 학생이 우수한 경우가 많고, 탐구형인재전형에서 요구하는 탐구형 역량은 특목·자사고 학생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고교 유형에 따른 전형 경쟁력은 절대적이지 않다. 지원자의 학교별 차이도 존재하고, 출신고의 유형이 당락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빈치형인재전형에서도 특목·자사고 학생이 합격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일반고 학생이라고 무조건 다빈치형인재전형에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학중인 고교 유형으로 전형을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학생부가 어떤 전형에 더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앙대 합격의 핵심은 이러한 전형 선택에 있다. 학교 선생님은 전년도 결과를 통해 어떤 학생이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그 학생부의 특성은 어떤지를 알고 있다. 다른 대학을 지원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중앙대를 고려하는 학생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학생부가 어떤 전형에 적합한지 담임선생님이나 진학부장 선생님과 꼼꼼하게 상담해보아야 한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한국외대는 대학 내의 스펙트럼 자체가 넓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인문/자연계열의 계열별 스펙트럼도 넓은 편이지만, 인문계열 안에서 전공에 따른 학생들의 선호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다양한 소수어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외대의 숙명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특징은 정시모집에서도 나타나지만 정시모집은 점수논리가 많은 것을 결정한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적성과는 무관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신이 선호하고 준비했던 전공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더욱 극명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몽골어를 전공하겠다고 마음먹는 학생의 수는 영문학과를 전공하겠다고 마음먹는 학생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국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선호도가 존재하는 대형학과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언어 학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의 경우 다른 주요 경쟁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상대적으로 상위의 대학에 동시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고 충원율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소수어과의 경우 매해 그 양상이 다르고, 일종의 유행이라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큰 기업에서 해당 국가에 대규모의 투자를 했다던가, 국가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던가 하는 것의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베트남을 필두로 하는 동남아시아 언어들이 이전보다 더 관심을 받을 것이다.

한국외대 소수어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전공적합성'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할 필요는 없다. 한국외대는 정말로 많은 언어를 다루는 외국어대학이다. 대학에서 다뤄야만 하는 일부 언어에 대해, 고등학교에서 그 역량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외대에 개설된 전공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도 빠져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과목 자체를 개설할 수가 없다.

한국외대에서 요구하는 전공적합성은 지원하려는 특정 언어에 대한 역량이 아니다. 애초에 전공적합성의 취지가 그렇지만, '낯선 언어를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자세'로서 전공적합성을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한국외대에 지원하기 위한 전공적합성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 한양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유의사항

한양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전체 대입전형에 '착한 입시'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현재의 전형 체제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여러 매체를 통해 현행 선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으며 평가의 원칙과 기준이 안정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학 전형 정책의 변화가 없이 적지 않은 기간 유지되고 있고, 그 입학 전형과 평가의 기초도 유지되고 있다.

한양대는 서류평가에서 수상경력/창의적 체험활동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타 항목에 비해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학업 역량' 평가는 내신 등급에 대한 평가가 아닌데, 한양대는 이러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1등급 극 초반의 학생부터, 5~6등급 이하의 학생도 존재한다. 이는 평가 단계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합격자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를 확인하여 발표한 것이다.

한양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경쟁대학으로 표현되는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낮은 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상술한 한양대의 평가방식의 특징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한 대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면접 등 다른 전형요소 때문이 아니고서야 다른 대학에서도 합격에 준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양대는 '한양대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자연계열의 경우도 유독 눈에 띄는 몇몇 모집단위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낮은 편인데, 충원율이 높은 모집단위라도 이를테면 '수학교육과'같이 대학마다 평가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모집단위인 이 유가 크다.

두 번째는 '수시 지원 6회'라는 횟수 제한과 한양대의 입시적 위치이다. 충원율이 낮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더 상위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적었다는 뜻인데, '합격한 학생'이 적었는지 '지원한 학생'이 적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상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서강대/성균관대에서 6개의 원서를 모두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한양대는 중위권 학생들이 '상향지원의 최고대학'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한양대의 낮은 충원율은 한양대에 합격하는 경우 한양대가 등록 1순위인 학생이 경쟁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양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위해선 지난 입시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의 입시결과는 통계적인 수치나 공학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개별 사례'를 의미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학교 선배 중 전년도에 한양대에 지원했다가 합격한 선배/불합격한 선배의 학생부를 비교 대조해보는 것이다. 한양대는 학생부 외의 전형 요소가 없으므로 그 학생부 안에 그 이유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경쟁대학에는 불합격했는데 한양대에만 합격한 사례가 있다면 더욱 좋다. 한양대가 우수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그 학생부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